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인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및  
교수불안 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황 민 지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및  
교수불안 연구

임 인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황 민 지

# 인 준 서

황민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배 수 영     (서명 또는



심 사 위 원     임 인 경     (서명 또는



심 사 위 원     김 은 주     (서명 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및 교수불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창작 수업을 하기 위해 함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창작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사범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 103명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29.0을 통하여 분석 처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은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지식이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법 지식, 환경맥락 지식, 내용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사항 중 전공,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또한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수내용지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사항 중 전공,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모두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의 경우, 내용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교수법 지식은 교수불안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

식과 교수불안이 비교적 평균의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모두 전공,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체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의 경우 내용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교수법 지식은 교수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창의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음악 교과에서도 창작영역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악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창작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음악 창작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예비음악교사가 창작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고 훗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음악 창작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4
<b>II. 이론적 배경</b> .....	<b>5</b>
1. 교수내용지식 .....	5
2. 교수불안 .....	10
3.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의 창작영역 .....	12
4. 선행연구 .....	15
<b>III. 연구 방법</b> .....	<b>19</b>
1. 연구 대상 .....	19
2. 연구 절차 .....	20
3. 연구 도구 .....	22
4. 분석 방법 .....	25
<b>IV. 연구 결과</b> .....	<b>26</b>
1.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	26

2.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	44
3.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	49
V. 결론 .....	52
참고문헌 .....	55
ABSTRACT .....	59
<부록> 설문지 .....	62

## 표 목 차

<표 1> 학자별 교수내용지식 구성요소 .....	8
<표 2> 학자별 음악교수내용지식 구성요소 .....	10
<표 3>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창작영역 활동 주제별 분류 .....	13
<표 4>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별 국악 창작 활동 비교 .....	14
<표 5> 일반적 사항 빈도분석 .....	20
<표 6> 연구 절차 .....	21
<표 7> 설문지 문항 구성 .....	22
<표 8>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별 문항 신뢰도 .....	24
<표 9>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문항 신뢰도 .....	24
<표 10>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기술통계 분석 .....	26
<표 11>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내용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	27
<표 12>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	29
<표 13>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환경맥락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	30
<표 14>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법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	31
<표 15>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	35
<표 16>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	36
<표 17>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사후분석 .....	37
<표 18>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내용 지식 사후분석 .....	38
<표 19>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육과정 지식 사후분석 .....	38
<표 20>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환경맥락 지식 사후분석 .....	39
<표 21>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법 지식 사후분석 .....	40

<표 22>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 지식 차이 .....	41
<표 23>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	42
<표 24>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	43
<표 25>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기술통계 분석 .....	45
<표 26>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	45
<표 27>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	46
<표 28>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사후분석 .....	46
<표 29>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	47
<표 30>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	48
<표 31>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	48
<표 32>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	50
<표 33>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	50

## 그림 목 차

[그림 1] 2-8번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비교 .....	28
[그림 2] 28-34번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비교 .....	33
[그림 3] 35-41번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비교 .....	3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 역량이 주목받음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에서도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표현’에 포함되어있던 ‘창작’이 하나의 내용 체계로 독립되었다. 창작은 음악을 부르거나 연주하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활동이므로, 최근 교육계에서 강조하는 여러 역량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인다(박지현, 양인승, 2016).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음악교사는 창작 수업을 활성화하여 음악 교과에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 교육에서 창작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창작영역은 가창, 기악, 감상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송송이, 2019). 영역별 음악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 지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창작을 택했으며,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창작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창, 기악, 감상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창작영역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부족, 학생들의 학습 능력 부족, 교육과정 내용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송민경, 2021).

따라서 창작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창작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진 상태여야 한다(김보희, 2020). 이때 교사의 전문성은 교수내용지식과, 자신감은 교수불안과 각각 연관 지을 수 있다. 먼저 교수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이란 Shulman(1986)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CK)과 교수법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곧 학생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교수법을 모두 포함하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말한다(Shulman, 1986).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음악 수업의 수준을 결정하며, 음악 수업의 수준은 곧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에 직결된다(권덕원, 석문주, 2016).

교수불안은 심리학에서의 불안에 대한 연구를 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이는 수업 중 느끼는 상태불안과 수업을 하지 않을 때 일상적으로 느끼는 특성불안이 합쳐진 개념이다(김혜림, 2015). 이에 음악교수불안이란 교사가 음악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이나 수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자신감은 음악교수불안의 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장정애, 조형숙, 2007). 특히 음악 교과는 교사의 실연이 동반된다는 특성 때문에 교사가 음악교수불안을 느낄 경우 타 교과에 비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김혜림, 2015). 그러므로 창작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신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의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한 연구가 최근 여러 교과에서 진행되면서, 음악 교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음악교사의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수준과 교수불안 정도에 대한 연구(김혜림, 2015), 현직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 수준과 음악 수업에 대한 교수불안과 관련한 연구(윤나라, 2016)에서는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교수내용지식이 높은 경우 교수불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은 음악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윤나라, 2017). 그러나 최근 강조되

고 있는 음악 창작영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연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교사의 전문성이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최근 예비교사의 교육인 직전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음악 교과에서도 예비교사 단계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며, 음악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김혜림,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예비음악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음악 창작 수업을 하기 위해 함양해야 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음악 창작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수준,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의 각 하위영역은 교수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예비음악교사의 범위를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재학생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음악교사를 준비 중인 학생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로 설문의 응답자는 총 103명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순 무선 표집하여 연구 대상의 성비와 지역 분포가 고르지 않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교수내용지식

#### 1) 교수내용지식의 정의

Shulman(1986)이 주창한 교수내용지식(PCK)은 내용지식(CK)과 교수법 지식(PK)이 결합된 개념이다. 이는 곧 학생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내용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교수법을 모두 포함하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교수내용지식은 수업의 전문화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새롭게 제안된 것으로, Shulman(1986)이 개념을 주창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면서 점차 발전하였다(윤나라, 2017).

Cochran, DeRuiter & King(1993)은 이러한 Shulman(1986)의 개념을 구성주의 관점에 따라 확장시켜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ing: PCKg)으로 새롭게 제안하였다. 지식의 역동적인 성질을 강조하고자 기존의 지식(knowledge)이라는 단어를 ‘앎(knowing)’으로 변화시킨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학습이 발생하는 상황의 맥락을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다(윤나라, 2017). 교사들 또한 하나의 학습자이며,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배운다고 본 것이다(Tuan, Jeng, Whang & Kaou, 1995).

van Driel, Verloop & de Vos(1998)는 교수내용지식을 기능지식의 특수한 형태라 설명하며 일반적 지식과 구별하였다. 여기서 기능지식이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말한다. 교수내용지식은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적 지식과는 다

른 것으로 구분하며, 이는 교사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Magnusson, Krajcik & Borko(1999)는 교수내용지식이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효율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곧 교과 지식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지식들이 교수를 위하여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

Barnett & Hodson(2001)은 교수내용지식을 맥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에 PCK에서 내용(content)을 맥락(context)으로 변형하여 PCKx(Pedagogical context knowled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수내용지식이 특정 맥락과 상황에 있어서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Park & Oliver(2008)는 교수내용지식이란 “학습 환경의 제한 속에서 여러 교수법, 내용표현, 평가를 사용하여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지식과 실행”(김보희, 2020, p.15)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교과 지식을 교수할 수 있도록 변형한 교수용 지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수내용지식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여러 지식의 총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내용지식(CK) 및 교수법지식(PK)과 더불어 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설명하고 보여주며 명료화하는 능력을 ‘교수내용지식’이라 정의하고 있다(김미숙 외, 2022).

## 2)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

Shulman(1986)은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의 2가지로 정의하였다. 교과내용지식은 교사에게

내재되어있는 교과와 관련한 지식이고, 교육과정지식은 특정 교과에서의 교수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나 교육 자료 활용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후 Shulman(1987)은 처음 제시했던 구성요소를 수정하여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교육과정지식, 일반 교육학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의 7가지로 확대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Shulman(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확장 및 재조직하였다(윤나라, 2017).

Grossman(1990)은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육과정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교수법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학생지식은 학생의 이해도와 개념 및 오개념 수준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Cochran, DeRuiter & King(1993)은 교수내용지식을 PCKg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 일반 교육학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으로 구분하였다. Tuan et al.(1995)은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육과정지식, 교과내용지식, 일반 교육학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 평가지식, 표상적지식의 7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때 표상적 지식이란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자극하며 설명하는 기술을 말한다. 후에 Tuan, Chang, Wang & Treagust(2000)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교수법지식, 표상적지식, 교과내용지식, 학생지식으로 수정하였다.

van Driel, Verloop & de Vos(1998)는 이러한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 교육목적지식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교수내용지식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김보희, 2020). Magnusson, Krajcik & Borko(1999)는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육과정지식, 학생지식, 교수법지식, 평가지식,

교육목적지식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Park & Oliver(2008)는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수법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평가지식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Grossman(1990), Magnusson, Krajcik & Borko(1999)의 도식을 수정한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자별 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학자별 교수내용지식 구성요소

학자	연도	구성요소
Shulman	1986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Shulman	1987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식, 일반 교육학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
Grossman	1990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Cochran, DeRuiter & King	1993	교과내용지식, 일반 교육학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
Tuan et al.	1995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일반 교육학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 평가지식, 표상적지식
van Driel, Verloop & de Vos	1998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환경맥락지식
Magnusson, Krajcik & Borko	1999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평가지식
Tuan et al.	2000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학생지식, 표상적지식
Park & Oliver	2008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식, 교육목적지식, 학생지식, 평가지식

### 3) 음악 교과에서의 교수내용지식

교수내용지식은 교과별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교과의 내용과 관련한 ‘고유한 교수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이경언, 최승현, 2007). 이에 음악 교과에서의 교수내용지식은 Shulman(1986)의 정의를 바탕으로 “음악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교사의 지식”(이경언, 최승현, 2007, p.41)이라 요약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음악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Ballantyne & Packer(2004)는 Shulman(1986)의 교수내용지식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구성요소를 교수내용지식과 기술, 음악지식과 기술, 일반교수법지식과 기술, 비교수법 전문지식과 기술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비교수법 전문지식의 경우 교육과정 외의 음악 활동, 예산 운영, 지역사회·동료·학생·학부모와의 교류 및 소통 등의 능력을 포함한다(이지희, 2016). 이경언, 최승현(2007)은 음악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학생이해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수전략지식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때 교육과정지식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외에도 교사의 음악적인 레퍼토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김희숙(2010)은 음악교수내용지식이 타 교과에서 요구되는 교수내용지식과 달리 추가적으로 기능(music skill)이 포함되는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음악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음악교수내용지식은 음악의 개념과 더불어 연주기술이 포함되는 지식이라 정의하였다. 장근주(2011)는 김희숙(201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교수내용지식을 교과내용지식, 교육학지식, 학생이해지식, 상황지식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정리하였다. 이때 교육학지식은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주희선(2014)은 과학 교과교육학지식 측정도구 개발에 대해 연구한 박성혜(2003)의 교수내용지식 구성요소를 수용하며 확장시켰다. 이에 음악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교수법지식, 내용표현지식, 내용지식, 평가지식, 학생지식, 교육과정지식, 환경지식의 7가지로 정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자별 음악교수내용지식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학자별 음악교수내용지식 구성요소

학자	연도	구성요소
Ballantyne & Packer	2004	교수내용지식과 기술, 음악지식과 기술, 일반교수법 지식과 기술, 비교수법 전문지식과 기술
이경언, 최승현	2007	교육과정지식, 교수전략지식, 학생이해지식
김희숙	2010	음악적 기능(music skill)을 강조하여 연주기술을 포함
장근주	2011	교과내용지식, 교육학지식, 상황지식, 학생이해지식
주희선	2014	교수법지식, 내용표현지식, 내용지식, 평가지식, 학생지식, 교육과정지식, 환경지식

## 2. 교수불안

### 1) 교수불안

교수불안이란 심리학에서의 불안에 대한 연구를 교육학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교수 활동을 하는 중에 느끼는 상태불안과 교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특성불안으로 구성된다. 교수불안의 개념은 초기에

Spielgerger(1972)와 Levitt(1980)에 의해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지다가, Westerback(1984)에 의하여 교육학적 측면에서 모든 교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교수불안은 교과에 대한 태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흥미가 전제되어 자신감이 생길 때 교수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교수불안 정도가 낮은 교사는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주입식 수업보다는 비지시적인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해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장정애, 조형숙, 2007).

국내 교수불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과학 교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황선미(2011)는 교사들의 연령, 교직 경력, 최종학력, 과학 관련 경험이 증가할수록 과학교수불안의 정도가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특성불안보다 상태불안의 정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최성연, 김성원(2010)은 교사의 과학 교수불안이 과학 교과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자신감과 연관이 있으며, 과학교수불안이 낮은 교사일수록 과학교수효능감이 높다고 밝혔다. 김영옥, 이규림, 조홍자, 차금안(2012)은 교사의 과학적 지식수준이 과학교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이 과학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과학 교수불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 2) 음악 교과에서의 교수불안

음악교수불안이란 교사가 음악 수업을 하는 중이나 음악 수업을 하지 않을 때 수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한다(신금호, 2013). 이러한 음악교수불안은 타 교과 교수불안에 비해 실기와 관련한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다. 음악 교과는 실기와 다양한 기자재 사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의 부족, 기자재 사용법에 대한 어려움이 음악교수불안으로 이어진다. 또한 교수불안이 높은 음악교사는 반주나 가창 및 연주의 시범 등을 원활하게 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교사의 실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수업 진행에 큰 타격이 있다.

장정애, 조형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교수불안은 교사가 음악 교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때 음악 수업이 안정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교과에 대한 흥미, 지식의 수준, 실기에 대한 자신감, 악기 연주에 대한 경험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음악교수불안이 낮을수록 음악이 즐겁고 유쾌하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교수 행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수불안이 낮은 교사들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높은 열정을 지니고, 전문성 발달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연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음악 교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또한 음악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실제에서 실천하며, 다양한 악곡과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불안은 역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음악교사는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음악 교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수불안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의 창작영역

본 연구는 연구 도구의 설문 문항을 보다 체계화 및 세분화하기 위해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창작 활동을 다음 <표 3>과 같이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때 다른 영역이 주가 되는 활동에 창작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3>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창작영역 활동 주제별 분류

주제	활동 내용 예시	빈도수	백분율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UCC 창작, 배경음악 창작	26	19.4
국악 창작	주어진 조건(예: 토리, 장단, 형식)에 따른 창작, 국악 음악극 창작, 변형 장단 창작, 말 붙임새·메기는 소리 노랫말 창작, 판소리 사설과 발림 창작	25	18.7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예: 형식)에 따른 창작	24	17.9
음악극 창작	음악극 창작	14	10.5
리듬 창작	리듬 창작, 킵타·몸타 창작	11	8.2
가사 창작	랩 창작	9	6.7
변주	변주곡 창작	6	4.5
융합	시와 어울리는 음악 창작	5	3.7
응원가 창작	응원가 창작, 캠페인 송 창작	5	3.7
그림 악보 창작	그림 악보 창작	3	2.2
기타	악상 기호 창작, 우연성 음악 창작, 즉흥연주, 화성 창작	6	4.5
전체		134	100.0

위와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창작 활동을 주제에 따라 11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국악 창작’, ‘가락 창작’, ‘음악극 창작’, ‘리듬 창작’, ‘가사 창작’,

‘변주’의 7가지 주제를 연구 도구에 적용하였다.

국악 창작의 경우 전체 창작 활동 중 18.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별 국악 창작 활동의 주제 분류 및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별 국악 창작 활동 비교

교과서	주제	활동 내용	페이지	
교학사	①	가락 창작	정간보를 이해하고가락 창작	97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 창작	100
		리듬 창작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 창작	98-99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 장단, 형식)에 따른 창작	96-97
금성	②	융합	시와 어울리는 음악 창작	105
다락원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 장단)에 따른 창작	100
		리듬 창작	기본 장단의 변형 장단 창작	101
동아	①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창작	98-99
	②	음악극 창작	판소리와 창극 등을 이해하고 음악극 창작	60-63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가락 창작	100-101
미래엔	①	가사 창작	장단별로 말붙임새 창작	90-91
	②	리듬 창작	자진타령장단의 변형 장단 창작	78-79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장단, 토리)에 따른 창작	80-81
박영사	①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형식)에 따른 창작	44-48
		가사 창작	민요 메기는 소리의 노랫말 창작	49-50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형식)에 따른 창작	44-48
성안당	②	기타	판소리의 사실과 발림 창작	86

세광음악	①	리듬 창작	변형 장단 창작	82-83
		가락 창작	민요풍의 가락 창작	82-83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 창작	84-85
		음악극 창작	주제에 맞는 민요를 활용하여 음악극 창작	87-89
아침나라	①	가사 창작	세마치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창작	68
		가락 창작	민요풍의 가락 창작	69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 창작	60
음악과생활	①	가사 창작	민요 메기는 소리의 노랫말 창작	58-59
		리듬 창작	기본 장단의 변형 장단 창작	64-65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 창작	66-67
지학사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 창작	94-95
천재	①	리듬 창작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 창작	52-53
	②	가락 창작	주어진 조건(토리)에 따른 창작	48-49
YBM	①	음악극 창작	노랫말에 어울리는 음악극 창작	112-113

#### 4. 선행연구

##### 1) 음악 교과에서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한 연구

음악 교과에서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나라, 2017)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림, 2015)가 있다.

윤나라(2017)는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교수내용지식 수준과 음악 교수불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음악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일반적 사항은 교수내용지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셋째,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교수불안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일반적 사항은 교수불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섯째, 교수내용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불안이 낮게 형성되는 부(-)적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때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 대부분이 교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해 더욱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영향을 주는 하위요소들에 대해 심층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교과의 성격을 고려한 교수내용지식 및 교수불안 측정도구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혜림(2015)은 예비음악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및 교수불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비 사범대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의 경우, 포괄적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연주 기술이나 교수법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불안의 경우, ‘강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안 정도를 보였으며, 불안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평가’ 영역이었다. 셋째,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교수불안 간의 부(-)적 상관관

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통해 향후에 타 전공 음악분야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될 시, 서양음악과 국악의 전공 인원을 고르게 표집하고 전공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2) 타 교과에서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한 연구

타 교과에서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과학 교과에서의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다영, 황은희, 이경옥, 2012)와 과학 교과에서의 예비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홍자, 임귀자, 2016)가 있다.

김다영, 황은희, 이경옥(2012)은 과학 교과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교육학 지식과 교수 태도 간의 관계 속에서 과학 교수불안이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의 사립 유치원에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과학 교과에 대한 교육학 지식과 교수 태도 간의 관계 속에서 과학 교수불안은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학 교과에 대해 교육학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불안이 감소되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감소된 과학 교수불안은 과학 교수 태도의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들이 과학 교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각 배경변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홍자, 임귀자(2016)는 교수내용지식을 기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과학 수업을 진행한 후 예비 유아 교사의 과학적 지식과 교수불안 및 교수

효능감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수내용지식을 적용한 과학 수업의 효과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내용지식을 적용한 과학 수업은 예비 유아 교사의 과학적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수내용지식을 적용한 과학 수업은 예비 유아 교사의 과학 교수불안을 감소시킨다. 셋째, 교수내용지식을 적용한 과학 수업은 예비 유아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수내용지식을 적용한 과학 수업의 다양한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이 수업의 질과 더불어 교수 태도와 교수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 교과의 경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작영역에서의 연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전국의 예비중등음악교사 103명이다. 연구 대상 확보를 위해 해당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학교에 문의하여 학과 사무실 연락처를 파악하였다. 이후 조교에게 음악교육전공 단체 채팅방에 설문 링크 전달을 부탁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배포 후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108부이며,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하여 총 103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103명이며, 성별은 남자 9명(8.7%), 여자 94명(91.3%)으로 나타났다.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라서는 사범대학교 38명(36.9%), 교육대학원 65명(63.1%)으로 분류된다. 대학 전공 및 세부 전공은 건반악기가 33명(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현악 23명(22.3%), 작곡 18명(17.5%), 성악 11명(10.7%), 실용음악 11명(10.7%), 국악 7명(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있어서는 경험 있음이 67명(65.0%), 경험 없음이 36명(35.0%)이다. 교생실습 경험은 경험 있음이 59명(57.3%), 경험 없음이 44명(42.7%)이며,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의 경우 경험 있음이 66명(64.1%), 경험 없음이 37명(35.9%)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일반적 사항 빈도분석

구분		빈도수(N)	백분율(%)
성별	남	9	8.7
	여	94	91.3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	사범대학교	38	36.9
	교육대학원	65	63.1
전공	건반악기	33	32.0
	관현악	23	22.3
	성악	11	10.7
	작곡	18	17.5
	국악	7	6.8
	실용음악	11	10.7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유	67	65.0
	무	36	35.0
교생실습 경험	유	59	57.3
	무	44	42.7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유	66	64.1
	무	37	35.9
전체		103	100.0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 절차의 단계는 준비, 설계, 수행, 분석, 정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 및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절차

절차	내용	연구 기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li> <li>• 연구 주제 선정</li> </ul>	2022. 9. ~ 2023. 2.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수립</li> <li>• 연구 대상 섭외</li> <li>• 설문 문항 설계 및 수정</li> <li>• 예비조사 실시</li> <li>• 연구 도구 보완 및 최종 완성</li> </ul>	2023. 3. ~ 2023. 6.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배포 및 회수</li> </ul>	2023. 7. ~ 2023. 8.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통계 처리 및 분석</li> <li>• 연구 결과 해석</li> </ul>	2023. 9. ~ 2023. 10.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결과 해석에 따른 결론 도출</li> <li>• 논문 정리 및 퇴고</li> </ul>	2023. 10. ~ 2023. 11.

준비 단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결정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였다. 이후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를 수립하였고, 설문지 설계 후 음악교육과 교수 1인과 현직 중등음악교사 1인의 견해에 따라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재학생 3인과 현직 중등음악교사 1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수행 단계인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회수된 응답 자료를 처리 및 통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후 정리 단계에서 연구 결과 해석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논문을 완성하였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 구성은 <표 7>과 같다. 전체 문항 수는 69문항이며, 이는 일반적 사항 6문항, 교수내용지식 관련 49문항, 교수불안 관련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세부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7>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일반적 사항	성별	1	6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	2		
	전공	3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4		
	교생 실습 경험	5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6		
교수내용지식	내용 지식	1 - 8 25 - 26 43	49	
	교육과정 지식	9 - 15		
	환경맥락 지식	16 - 22		
	교수법 지식	23 - 24 27 - 42 44 - 49		
	교수불안	1 - 14		14
	총 문항 수			69

#### 1) 교수내용지식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이경언, 최승현(2007), 장근주(2011), 김보희(2020)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교수법 지식,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학생 지식 등 5가지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이 중 학생 지식은 예비교사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직교사의 조언에 따라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으로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교수법 지식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교수내용지식 연구 도구는 내용 지식 11문항, 교육과정 지식 7문항, 환경맥락 지식 7문항, 교수법 지식 24문항으로 총 49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은 김보희(2020), 김혜림(2015)의 음악 교수내용지식 측정 도구를 일부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끔 수정 및 보완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추가적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의 경우, 문항을 보다 체계화 및 세분화하기 위하여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에 창작영역을 가락 창작,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음악극 창작, 리듬 창작, 가사 창작, 변주, 국악 창작의 7가지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지식 관련 문항의 경우,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학교 교육 계획을 고려하기 위하여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참고해 수정 및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교수내용지식 연구 도구의 설문 문항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수내용지식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70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내용 지식이 .918, 교육과정 지식이 .900, 환경맥락 지식이 .810, 교수법 지식이 .945로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별 문항 모두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별 문항 신뢰도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내용 지식	1 - 8	11문항	.918
	25 - 26		
	43		
교육과정 지식	9 - 15	7문항	.900
환경맥락 지식	16 - 22	7문항	.810
교수법 지식	23 - 24	24문항	.945
	27 - 42		
	44 - 49		
전체		49문항	.970

## 2) 교수불안 연구 도구

교수불안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는 곽동훈(2018), 김혜림(2015)의 음악 교수불안 측정 도구를 일부 참고해 본 연구에 맞게끔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설문지 중 예비교사에게 해당하지 않는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불안 연구 도구는 총 14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교수불안 연구 도구의 설문 문항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교수불안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74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문항 신뢰도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교수불안 전체	1 - 14	14문항	.874

#### 4. 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103부의 자료는 모두 IBM SPSS Statistics 29.0을 활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수준을 알아보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예비음악교사의 일반적 사항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예비음악교사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응답자의 일반적인 응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10>과 같이 교수내용지식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기술통계 분석

	구분	<i>n</i>	<i>M</i>	<i>SD</i>
	교수내용지식	103	3.49	.66
하위영역	내용 지식	103	3.32	.79
	교육과정 지식	103	3.62	.77
	환경맥락 지식	103	3.42	.73
	교수법 지식	103	3.56	.69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의 전체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M=3.49(SD=.66)$ 로 평이하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지식이  $M=3.62(SD=.77)$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법 지식이  $M=3.56(SD=.69)$ 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맥락 지식은  $M=3.42(SD=.73)$ 이며, 응답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내용 지식으로  $M=3.32(SD=.79)$ 이다.

다음으로 교수내용지식의 각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하위영역별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내용 지식의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내용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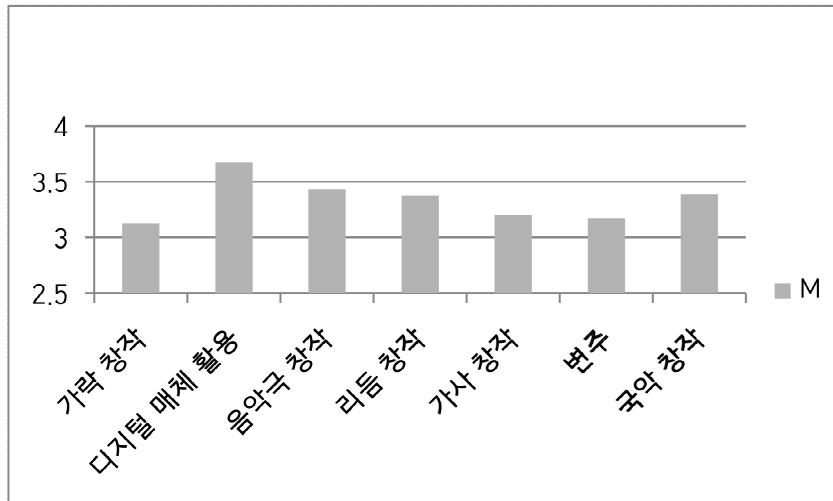
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i>n</i>	<i>M</i>	<i>SD</i>
교수내용지식	내용 지식	1	103	3.11	.99
		2	103	3.13	1.08
		3	103	3.67	.97
		4	103	3.43	.96
		5	103	3.37	1.05
		6	103	3.20	1.25
		7	103	3.17	1.15
		8	103	3.38	1.13
		25	103	3.10	1.04
		26	103	3.25	1.05
		43	103	3.82	1.10
		전체	103	3.32	.79

내용 지식 영역에서는 43번 문항( $M=3.82$ )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서 학생 활동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3번 문항( $M=3.67$ ) ‘나는 디지털 매체(예: 편집 프로그램, 작곡 프로그램 등)를 활용한 창작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의 순으로 응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학생의 창작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매체 활용 질문에 답하는 등의 추후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교수내용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응답 수준의 경우 25번 문항( $M=3.10$ ) ‘나는 창작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예를 들 수 있다.’, 1번 문항( $M=3.11$ )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의 순으로 나타나, 창작 수업 내용 설명 시 적합한 예를 들거나 창작 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는 등 음악 창작에 대한 이론적 교수역량을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교수내용지식을 형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음악교사의 내용 지식이 창작영역별 주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8번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음악 창작 수업의 주제를 가락 창작,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음악극 창작, 리듬 창작, 가사 창작, 변주, 국악 창작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연구 도구 설계 시 설문 문항에 이러한 분류를 적용하였다. 위의 [그림 1]에서 비교한 2번부터 8번 문항의 경우 ‘나는 창작영역별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는 공통된 내용을 각 주제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7개 문항의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내용 지식에 있어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M=3.67$ )에 대한 응답 수준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가락 창작(예: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창작 등)’( $M=3.13$ )의 응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예비음악교사의 내용 지식은 이론적 교수역량이 요구되는 상황 중에서도 특히 ‘가락 창작’ 수업과 관련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의 창작영

역 중 ‘가락 창작’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 ‘가락 창작’ 관련 내용 지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 12>와 같이 교육과정 지식의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12>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i>n</i>	<i>M</i>	<i>SD</i>
교수내용지식	교육과정 지식	9	103	3.48	1.01
		10	103	3.39	1.02
		11	103	3.38	1.01
		12	103	3.96	.89
		13	103	3.66	1.03
		14	103	3.66	.95
		15	103	3.86	.96
		전체	103	3.62	.77

교육과정 지식 영역에서는 12번 문항( $M=3.96$ ) ‘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 창작영역이 학년 군 별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15번 문항( $M=3.86$ ) ‘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악 창작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지 계획할 수 있다.’의 순으로 높은 응답 수준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교수내용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고교학점제 관련 문항의 응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인 것은 11번 문항( $M=3.38$ ) ‘나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 중 교육

과정 지식 영역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1번 문항의 응답 수준은 교육과정 지식 영역에서 가장 낮음에도, 내용 지식 영역의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맥락 지식의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환경맥락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i>n</i>	<i>M</i>	<i>SD</i>
교수내용지식	환경맥락 지식	16	103	3.66	.97
		17	103	3.69	.97
		18	103	3.91	.98
		19	103	3.64	.99
		20	103	3.52	1.00
		21	103	2.83	1.29
		22	103	2.71	1.21
		전체	103	3.42	.73

환경맥락 지식 영역에서는 18번 문항( $M=3.91$ )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시설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맞는 수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7번 문항( $M=3.69$ )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필요한 교구, 교재 등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할 수 있다.’ 순으로 높은 응답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교 내 시설 및 교구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수내용지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2번 문항( $M=2.71$ ) ‘나는 학생들의 수준 및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창작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21번 문항( $M=2.83$ ) ‘나는 음악 창작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교육과 지속적인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의 순으로 응답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악 창작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설 파악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수준이

높은 것과 달리 학생 수준 및 학습상황을 고려하는 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음악교사가 창작 수업의 질이 예비교사 교육과 계속적 연수 과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4>와 같이 교수법 지식의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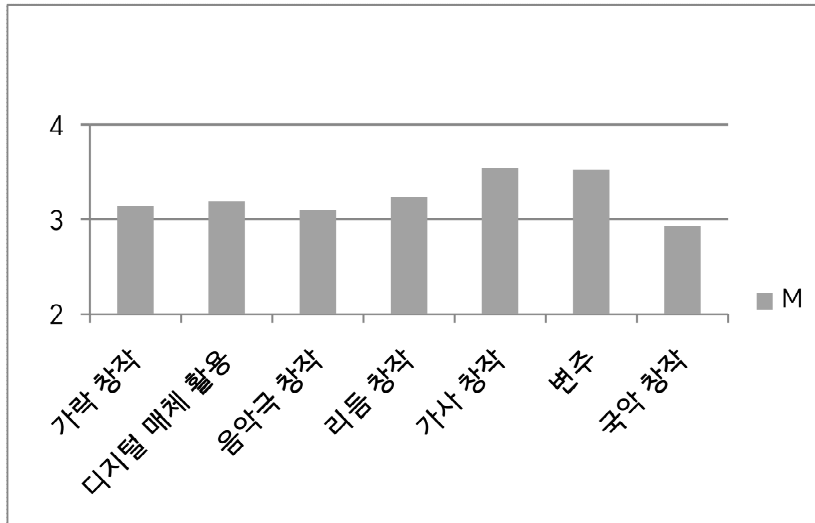
<표 14>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법 지식 하위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i>n</i>	<i>M</i>	<i>SD</i>
교수내용지식	교수법 지식	23	103	2.80	1.19
		24	103	3.04	1.05
		27	103	2.86	1.12
		28	103	3.14	1.11
		29	103	3.18	1.21
		30	103	3.10	1.06
		31	103	3.23	1.06
		32	103	3.54	1.09
		33	103	3.52	1.04
		34	103	2.92	1.18
		35	103	3.53	1.23
		36	103	4.39	.91
		37	103	3.68	.99
		38	103	3.44	1.10
		39	103	3.65	.98
		40	103	3.79	1.00
		41	103	3.80	1.05
		42	103	3.95	.97
		44	103	4.06	.95
		45	103	3.98	1.01
46	103	3.81	.91		
47	103	3.83	.90		
48	103	3.86	.92		
49	103	4.35	.78		
		전체	103	3.56	.69

교수법 지식 영역에서는 36번 문항( $M=4.39$ ) ‘나는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악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49번 문항( $M=4.35$ ) ‘나는 창작영역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가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의 순으로 높은 응답 수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악 창작 교수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수내용지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지식 영역에서도 디지털 매체 활용과 관련한 문항의 응답 수준이 높았던 점으로 보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수내용지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9번 문항의 높은 응답 수준을 통해 대부분의 예비음악교사가 ‘창작영역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가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인 것은 23번 문항( $M=2.80$ ) ‘나는 창작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7번 문항( $M=2.86$ ) ‘나는 창작 수업 주제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의 두 문항이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창작 수업에 있어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수내용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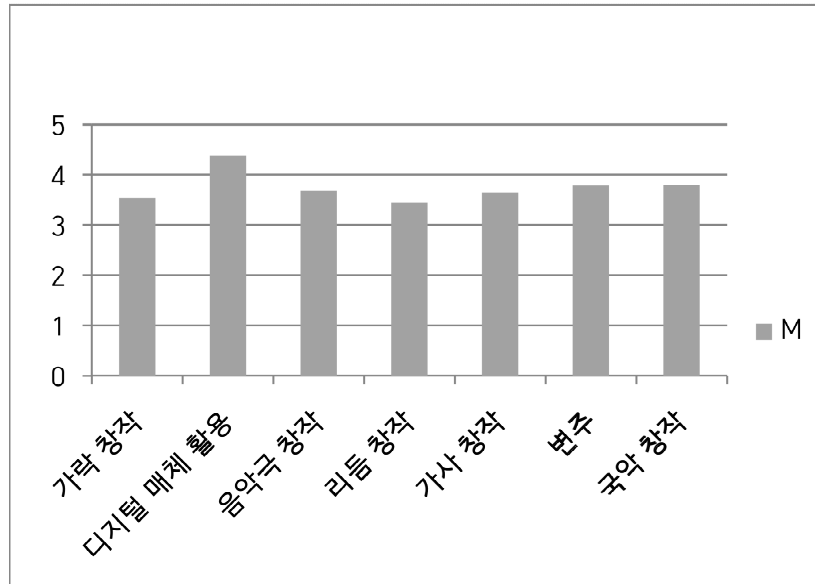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법 지식이 창작영역별 주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선 ‘나는 학생들이 주제별 창작 과정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7가지 주제에 따라 세분화한 28번부터 34번 문항의 응답을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28-34번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비교

이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법 지식에 있어서 ‘가사 창작’(32번 문항)과 관련한 응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인 주제는 ‘국악 창작’(34번 문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35번부터 41번 문항의 경우 ‘나는 학생들이 주제별 창작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7가지 주제에 따라 나눈 것으로,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35-41번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비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관련한 교수법 지식의 응답 수준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악 창작’(36번 문항)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리듬 창작’(38번 문항)과 관련한 응답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주요 변인에 따른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 차이

### (1)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구분	기관	<i>n</i>	<i>M</i>	<i>SD</i>	<i>t</i>	<i>p</i>	
교수내용지식	사범대학교	38	3.51	.63	.176	.861	
	교육대학원	65	3.48	.69			
내용 지식	사범대학교	38	3.28	.68	-.430	.668	
	교육대학원	65	3.35	.86			
하위 영역	교육과정 지식	사범대학교	38	3.60	.83	-.177	.860
		교육대학원	65	3.63	.75		
환경맥락 지식	사범대학교	38	3.45	.76	.362	.718	
	교육대학원	65	3.40	.71			
교수법 지식	사범대학교	38	3.60	.64	.521	.604	
	교육대학원	65	3.53	.72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교수내용지식에 있어서 사범대학교( $M=3.51$ )가 교육대학원( $M=3.48$ )보다 조금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176, p>.05$ ). 따라서 교수내용지식에 있어서 사범대학교 재학생과 교육대학원 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위영역의 경우, 내용 지식( $t=-.430, p>.05$ ), 교육과정 지식( $t=-.177, p>.05$ ), 환경맥락 지식( $t=.362, p>.05$ ), 교수법 지식( $t=.521, p>.05$ ) 모두 사범대학교와 교육대학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공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전공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구분	전공	<i>n</i>	<i>M</i>	<i>SD</i>	<i>F</i>	<i>p</i>
교수내용지식	건반악기	33	3.33	.59	5.631***	.000
	관현악	23	3.09	.73		
	성악	11	3.59	.59		
	작곡	18	3.95	.52		
	국악	7	3.74	.38		
	실용음악	11	3.85	.57		
내용 지식	건반악기	33	3.03	.13	5.722***	.000
	관현악	23	2.96	.17		
	성악	11	3.46	.17		
	작곡	18	3.90	.13		
	국악	7	3.50	.20		
	실용음악	11	3.79	.22		
교육과정 지식	건반악기	33	3.56	.67	2.753*	.023
	관현악	23	3.19	.95		
	성악	11	3.85	.75		
	작곡	18	3.87	.62		
	국악	7	3.77	.66		
	실용음악	11	3.98	.68		
하위 영역	건반악기	33	3.32	.52	3.847**	.003
	관현악	23	3.00	.91		
	성악	11	3.57	.70		
	작곡	18	3.81	.70		
	국악	7	3.85	.53		
	실용음악	11	3.55	.56		
교수법 지식	건반악기	33	3.40	.62	5.311***	.000
	관현악	23	3.15	.77		
	성악	11	3.57	.59		
	작곡	18	4.03	.54		
	국악	7	3.81	.48		
	실용음악	11	3.92	.52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교수내용지식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공에 따른 전체 교수내용지식 수준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표 17>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사후분석

전공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3
관현악	23	3.09		
건반악기	33	3.33	3.33	
성악	11		3.59	3.59
국악	7		3.74	3.74
실용음악	11			3.85
작곡	18			3.95

\* $p < .05$

전체 교수내용지식은 작곡 전공( $M=3.95$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용음악 전공( $M=3.85$ ), 국악 전공( $M=3.74$ ), 성악 전공( $M=3.59$ ), 건반악기 전공( $M=3.33$ ), 관현악 전공( $M=3.09$ )의 순으로 이어진다. 전공별 교수내용지식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므로( $F=5.631$ ,  $p < .001$ )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곡·실용음악 전공과 관현악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작곡·실용음악을 전공한 예비음악교사가 다른 전공자보다 교수내용지식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 중 내용지식 수준의 차이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내용 지식 사후분석

전공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관현악	23	2.96	
건반악기	33	3.03	
성악	11	3.46	3.46
국악	7	3.50	3.50
실용음악	11		3.79
작곡	18		3.90

\* $p < .05$

내용 지식의 경우, 작곡 전공( $M=3.90$ )이 가장 높았으며, 실용음악 전공( $M=3.79$ ), 국악 전공( $M=3.50$ ), 성악 전공( $M=3.46$ ), 건반악기 전공( $M=3.03$ ), 관현악 전공( $M=2.96$ )의 순으로 이어진다. 전공별 내용 지식의 수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F=5.722$ ,  $p < .001$ )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곡·실용음악 전공과 건반악기·관현악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작곡·실용음악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높은 내용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 지식 수준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표 19>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육과정 지식 사후분석

전공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관현악	23	3.19	
건반악기	33	3.56	3.56
국악	7	3.77	3.77
성악	11		3.85
작곡	18		3.87
실용음악	11		3.98

\* $p < .05$

교육과정 지식에서는 실용음악 전공( $M=3.98$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곡 전공( $M=3.87$ ), 성악 전공( $M=3.85$ ), 국악 전공( $M=3.77$ ), 건반악기 전공( $M=3.56$ ), 관현악 전공( $M=3.19$ )의 순으로 이어진다. 전공별 교육과정 지식의 수준에 대한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 $F=2.753$ ,  $p<.05$ )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용음악·작곡·성악 전공과 관현악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용음악·작곡·성악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높은 교육과정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공별 환경맥락 지식 수준의 차이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환경맥락 지식 사후분석

전공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관현악	23	3.00	
건반악기	33	3.32	3.32
실용음악	11	3.55	3.55
성악	11	3.57	3.57
작곡	18		3.81
국악	7		3.85

\* $p<.05$

환경맥락 지식에서는 국악 전공( $M=3.85$ )이 가장 높았으며, 작곡 전공 ( $M=3.81$ ), 성악 전공( $M=3.57$ ), 실용음악 전공( $M=3.55$ ), 건반악기 전공 ( $M=3.32$ ), 관현악 전공( $M=3.00$ )의 순으로 이어진다. 전공별 환경맥락 지식의 수준에 대한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 $F=3.847$ ,  $p<.01$ )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악·작곡 전공과 관현악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악·작곡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높은 환경맥락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전공에 따른 교수법 지식 수준의 차이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법 지식 사후분석

전공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3
관현악	23	3.15		
건반악기	33	3.40	3.40	
성악	11	3.57	3.57	3.57
국악	7		3.81	3.81
실용음악	11		3.92	3.92
작곡	18			4.03

\* $p < .05$

교수법 지식에서는 작곡 전공( $M=4.03$ )이 가장 높았으며, 실용음악 전공( $M=3.92$ ), 국악 전공( $M=3.81$ ), 성악 전공( $M=3.57$ ), 건반악기 전공( $M=3.40$ ), 관현악 전공( $M=3.15$ )의 순으로 이어진다. 전공별 교수법 지식의 수준에 대한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F=5.311, p<.001$ )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곡 전공과 관현악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작곡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높은 교수법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예비음악교사의 전공에 따라 교수내용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수내용지식 전체와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Duncan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작곡 전공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곡을 전공하며 얻을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음악 창작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에 높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작곡 전공 다음으로 응답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실용음악 전공이며, 이는 타 전공과 달리 실용음악 전공이 즉흥 연주를 주로 다룬다는 전

공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인 것은 관현악 전공으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구분	수강 경험	<i>n</i>	<i>M</i>	<i>SD</i>	<i>t</i>	<i>p</i>	
교수내용지식	유	67	3.63	.62	2.967**	.004	
	무	36	3.24	.68			
내용 지식	유	67	3.51	.69	3.388**	.001	
	무	36	2.98	.87			
하위 영역	교육과정 지식	유	67	3.74	.71	2.197*	.030
	무	36	3.40	.85			
환경맥락 지식	유	67	3.49	.70	1.294	.199	
	무	36	3.29	.76			
교수법 지식	유	67	3.70	.64	2.923**	.004	
	무	36	3.29	.71			

\**p*<.05 \*\**p*<.01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경험이 있는 대상(*M*=3.63)이 경험이 없는 대상(*M*=3.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67, *p*<.01).

하위영역의 경우 환경맥락 지식을 제외한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법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용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

상( $M=3.51$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2.98$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388, p<.01$ ).

교육과정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74$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40$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97, p<.05$ ).

교수법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70$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29$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923, p<.01$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 유무에 따라 교수내용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험이 있는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특히 교수내용지식 전체와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에서 비교적 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4)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3> 과 같다.

<표 23>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구분	교생 실습 경험	$n$	$M$	$SD$	$t$	$p$
교수내용지식	유	59	3.54	.64	.790	.432
	무	44	3.43	.69		
내용 지식	유	59	3.35	.82	.368	.713
	무	44	3.29	.77		
하위 영역	교육과정 지식	유	59	3.72	1.546	.125
	무	44	3.49	.80		
환경맥락 지식	유	59	3.45	.74	.415	.679
	무	44	3.38	.72		
교수법 지식	유	59	3.60	.64	.728	.468
	무	44	3.50	.75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교수내용지식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대상( $M=3.54$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43$ )보다 조금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790, p>.05$ ). 따라서 교수내용지식에 있어서 교생 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경우, 내용 지식( $t=.368, p>.05$ ), 교육과정 지식( $t=1.546, p>.05$ ), 환경맥락 지식( $t=.415, p>.05$ ), 교수법 지식( $t=.728, p>.05$ ) 모두 교생 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내용지식 차이

구분	진행 경험	$n$	$M$	$SD$	$t$	$p$	
교수내용지식	유	66	3.66	.61	3.550***	.000	
	무	37	3.20	.67			
내용 지식	유	66	3.55	.70	4.087***	.000	
	무	37	2.92	.81			
하위 영역	교육과정 지식	유	66	3.76	.74	2.400*	.018
	무	37	3.38	.80			
환경맥락 지식	유	66	3.54	.70	2.204*	.030	
	무	37	3.21	.74			
교수법 지식	유	66	3.72	.63	3.332**	.001	
	무	37	3.27	.70			

\* $p<.05$  \*\* $p<.01$  \*\*\* $p<.001$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 창작 수업을 진행한 경험 유무에 따른 교수내용지식 수준은 경험이 있는 대상( $M=3.66$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20$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550$ ,  $p<.001$ ).

하위영역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용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55$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2.9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4.087$ ,  $p<.001$ ). 교육과정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76$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38$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400$ ,  $p<.05$ ). 환경맥락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54$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21$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04$ ,  $p<.05$ ). 교육과정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76$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38$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400$ ,  $p<.05$ ). 교수법 지식에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 $M=3.72$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3.27$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332$ ,  $p<.01$ ).

이를 통해 음악 창작 수업을 진행한 경험 유무에 따라 교수내용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특히 교수내용지식 전체와 내용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2.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교수불안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기술통계 분석

구분	영역	<i>n</i>	<i>M</i>	<i>SD</i>
교수불안	교수불안 전체	103	2.53	.79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의 교수불안 수준은  $M=2.53(SD=.79)$ 으로 평이하게 나타났다. 전체 교수내용지식 수준이  $M=3.49(SD=.66)$ 인 것을 참고하였을 때, 연구 대상의 교수불안 수준은 교수내용지식 수준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2) 주요 변인에 따른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불안 차이

### (1)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구분	기관	<i>n</i>	<i>M</i>	<i>SD</i>	<i>t</i>	<i>p</i>
교수불안	사범대학교	38	2.61	.79	.781	.437
	교육대학원	65	2.49	.80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에 따른 교수불안에 있어서 사범대학교( $M=2.61$ )가 교육대학원( $M=2.49$ ) 보다 조금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781, p>.05$ ). 따라서 교수불안에 있어서 교육대학원 재학생과 사범대학교 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공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전공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구분	전공	<i>n</i>	<i>M</i>	<i>SD</i>	<i>F</i>	<i>p</i>
교수 불안	건반악기	33	2.72	.72	6.955***	.000
	관현악	23	3.02	.71		
	성악	11	2.68	.54		
	작곡	18	1.96	.78		
	국악	7	2.12	.37		
	실용음악	11	2.01	.70		

\*\*\* $p < .001$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에 따른 교수불안 수준은 작곡 전공( $M=1.96$ )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용음악 전공( $M=2.01$ ), 국악 전공( $M=2.12$ ), 성악 전공( $M=2.68$ ), 건반악기 전공( $M=2.72$ ), 관현악 전공( $M=3.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교수불안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F=6.955, p < .001$ )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전공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사후분석

전공	<i>n</i>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작곡	18	1.96	
실용음악	11	2.01	
국악	7	2.12	
성악	11		2.68
건반악기	33		2.72
관현악	23		3.02

\* $p < .05$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작곡·실용음악·국악 전공과 성악·건반악기·관현악 전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작곡·실용음악·국악을 전공한 예비음악교사가 다른 전공자보다 교수불안을 낮게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작곡 전공의 경우, 교수내용지식의 분석 결과에서 응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구분	수강 경험	$n$	$M$	$SD$	$t$	$p$
교수불안	유	67	2.41	.78	-2.205*	.030
	무	36	2.76	.76		

\* $p < .05$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교수불안 수준은 경험이 없는 대상( $M=2.76$ )이 경험이 있는 대상( $M=2.4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05$ ,  $p < .05$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 유무에 따라 교수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수강 경험이 있는 예비음악교사의 경우 교수불안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구분	교생 실습 경험	$n$	$M$	$SD$	$t$	$p$
교수불안	유	59	2.59	.85	.794	.429
	무	44	2.46	.71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교수불안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대상( $M=2.59$ )이 경험이 없는 대상( $M=2.46$ )보다 조금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값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794, p>.05$ ). 따라서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은 교생 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

예비음악교사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음악 창작영역 교수불안 차이

구분	진행 경험	$n$	$M$	$SD$	$t$	$p$
교수불안	유	66	2.33	.80	-3.630***	.000
	무	37	2.89	.64		

\*\*\* $p<.001$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교수불안 수준은 경험이 없는 대상( $M=2.89$ )이 경험이 있는 대

상( $M=2.3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t=-3.630, p<.001$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악 창작 수업을 진행한 경험 유무에 따라 교수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진행 경험이 있는 예비음악교사의 경우 교수불안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수내용지식 전체와 각 하위영역 모두에서 교수불안과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교수내용지식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교수내용지식의 각 하위영역에서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수불안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분석은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므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내용지식을 독립변수로, 교수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과 그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회귀분석

전체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표 32>와 같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독립변인은 교수내용지식, 종속변인은 교수불안으로 설정하였다.

<표 32>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sup>2</sup>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5.038	.337		14.939***		
교수내용지식	-.714	.095	-.600	-7.546***	56.938***	.361

\*\*\* $p < .001$

단순회귀분석 결과  $F=56.938(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준화 계수의 경우  $\beta=-.600$ 으로, 전체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60.0% 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교수내용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불안의 수준은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2)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과 교수불안 회귀분석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표 33>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독립변인은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인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교수법 지식으로, 종속변인은 교수불안으로 설정하였다.

<표 33> 음악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이 교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 <sup>2</sup>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4.875	.344		14.174***		
내용 지식	-.401	.145	-.402	-2.772**		
교육과정 지식	.071	.144	.069	.492	15.893***	.393
환경맥락 지식	-.035	.143	-.032	-.246		
교수법 지식	-.320	.188	-.279	-1.703		

\*\* $p < .01$  \*\*\* $p < .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F=15.893(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결정계수의 경우  $R^2=.393$ 으로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의 39.3%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VIF 값의 경우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내용 지식( $t=-2.772, p<.01$ )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준화 계수  $\beta=-.402$ 로, 내용 지식이 교수불안에 40.2%만큼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 중 내용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불안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지식( $\beta=.069, p>.05$ ), 환경맥락 지식( $\beta=-.032, p>.05$ ), 교수법 지식( $\beta=-.279, p>.05$ ) 등은 교수불안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파악된다.

앞선 단순회귀분석 결과 교수내용지식 전체는 교수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내용 지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창작 수업을 하기 위해 함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창작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에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이 교수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사범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은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지식이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법 지식, 환경맥락 지식, 내용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인 내용 지식의 경우, 창작영역의 주제 가운데 ‘가락 창작’에 대한 이론적 교수역량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창작 활동 가운데 가락 창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음악 창작영역의 내용 지식, 그 중에서도 특히 가락 창작에 대한 교육이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주요 변인에 따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은 전공,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때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교수내용지식의 경우, 김보희(2020)의 선행연구보다 유의확률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매우

유의하다는 것이므로,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음악 창작 수업 진행의 경험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 또한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에 따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불안의 경우, 교수내용지식과 마찬가지로 전공,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모두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 교생 실습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경우,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모두 작곡 전공이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관현악 전공이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공통적인 결과들을 통해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은 교수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의 경우, 내용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교수법 지식은 교수불안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비음악교사가 교수내용지식 중 내용 지식 이외의 하위영역은 교수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 여기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다른 요인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용 지식이 높다면 창작영역의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직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윤나라(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 수업에 대한 현직교사의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 대부분이 교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음악교사가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 중 내용 지식 이외의 다른 영역들도 수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수내용지식의 모든

하위영역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수불안을 낮추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음악 창작 수업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음악교사의 창작영역에 대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이 비교적 평균의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교수내용지식과 교수불안 모두 전공,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체 교수내용지식이 교수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교수내용지식 하위영역의 경우 내용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 지식, 환경맥락 지식, 교수법 지식은 교수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창의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음악 교과에서도 창작영역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음악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창작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음악 창작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예비음악교사가 창작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고 훗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질 높은 음악 창작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곽동훈(2018). 예비음악교사의 피아노 반주 능력에 대한 내용지식과 교수불안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22).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22-33호 [별책 12].
- 권덕원, 석문주(2016). 음악교사의 PCK에 대한 이해와 적용. **교사교육연구**, 55(4), 460-471.
- 김다영, 황은희, 이경옥(2012). 유아교사의 과학 교과교육학지식과 과학교수 태도에 있어서 과학교수 불안의 매개효과 연구. **유아교육연구**, 32(6), 287-305.
- 김미숙,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최진호, 조대현, 배수영, 윤관기, 박영주 (2022). **음악교육학 개론**. 경기: 어가.
- 김보희(2020). 음악창작수업에 대한 예비중등음악교사 교수내용지식(PCK) 및 교수효능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이규림, 조홍자, 차금안(2012). 유아교사의 과학적 지식 수준에 따른 과학활동불안, 태도 및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99-115.
- 김혜림(2015). 예비음악교사의 타 전공 음악분야에 대한 교수내용지식 수준과 교수불안 정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10).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초등교사의 PCK 연구. **음악교육연구**, 39, 77-100.
- 박성혜(2003). 교사들의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 측정도구 개발.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105-134.
- 박지현, 양인승(2016).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음악 만들기 활동 수업 모형 개발. **음악교육연구**, 45(2), 149-168.

- 송민경(2021). 고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작곡수업에 대한 인식연구: 서울, 경기 지역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미래음악교육연구**, 6(1), 113-135.
- 송송이(2019). 음악 만들기(창작)활동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인식 및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에 관한 역량 조사: 중등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금호(2013).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불안 및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음악교수 효능감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145-163.
- 신혜경(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교과서 창작영역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691-710.
- 윤나라(2017). 현직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수준과 음악수업에 대한 교수불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언, 최승현(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PCK)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지희(2016). 국악에 대한 중등과정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과 교수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근주(2011). 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음악교육공학**, 13, 41-58.
- 장정애, 조형숙(2007). 음악교수불안 정도가 낮은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실제의 특성. **幼兒教育學論集**, 11(4), 269-289.
- 조홍자, 임귀자(2016). PCK(내용교수지식)를 적용한 과학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과학적 지식, 과학교수불안,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5), 1125-1142.
- 주희선(2014). 교육실습여부와 모의수업 경험에 따른 예비중등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의 차이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91-106.

- 최성연, 김성원(2010). 과학 교사의 효능감 관련 요인 탐색을 통한 과학 교사 효능감 형성 모형 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 693-918.
- 황선미(2011). 초등학교 초임 교사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과학 불안 및 태도 인식 조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chran, K. F., DeRuiter, J. A., & King, R. A. (1993). Pedagogical content knowing: An integrative model for teacher prepar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4(4), 263-272.
- Grossman, P. L. (1990). *The Making of a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Y: Teachers College Press.
- Magnusson, S., Krajcik, J., & Borko, H. (1999). Nature, sources, and development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for science teaching. In Gess-Newsome J., Lederman N. G.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p. 95-132). Dordrecht: Springer.
- Park, S., & Oliver, J. S. (2007). Revisiting the conceptualis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PCK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eachers as professional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8, 261-284.
- S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 Tuan, H. L., Jeng, B. Y., Whang, L. J., & Kaou, R. C. (1995). A case study of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an

Francisco, CA.

- Tuan, H. L., Chang, H. R., Wang, K. H., & Treagust, D. F. (200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asses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2(4), 385-398.
- van Driel, J., Verloop, N., & de Vos W. (1998). Developing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6), 673-695.

# ABSTRACT

## A Study on the Pre-service Music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Teaching Anxiety in Music Creative Classes

Hwang, Min ji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and teaching anxiety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in music creative classes, aiming to identify areas that need to be cultivated for pre-service music teachers to conduct high-quality music creative classes on actual teaching. Consequently,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materials that enable more effective music creative education with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o achieve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3 pre-service music teachers enrolled in nationwide Colleges of Education and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9.0. Summariz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the PCK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in music creative classes showed a relatively average level. Among the sub-domains, curricular knowledge exhibited the highest response level, followed by pedagogical

knowledge, contextual knowledge, and content knowledge in that order. Addition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ased on factors such as major, experience in attending courses related to music creative classes, and experience in conducting music creative classes.

Second, pre-service music teachers' teaching anxiety in music creative classes also showed a relatively average level. Similar to PCK,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based on factors such as major, experience in attending courses related to music creative classes, and experience in conducting music creative classe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based on the institution granting(anticipated) Teacher Certification or teaching practicum experience in both PCK and teaching anxiety.

Third, the overall PCK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impact on teaching anxiety in music creative classes. However, among the sub-domains of PCK, apart from content knowledge, other curricular knowledge, contextual knowledge, and pedagogical knowledge did not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eaching anxiety.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CK and teaching anxiety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in the music creative classes are relatively at an average level. Both PCK and teaching anxie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variables such as major, experience in attending courses related to music creative classes, and experience in conducting music creative classes. Moreover, while the overall PCK negatively influenced teaching anxiety, sub-domains of PCK, excluding content knowledge, were found not to significantly impact teaching anxiety.

With creativity gaining attention across the educational curriculum, the emphasis on the creative domain in music education is evident. Consequently, music teachers need to activate creative classes to foster students' creativit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hoped that music creative education with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can be more effective.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pre-service music teachers to gain expertise and confidence in creative domain, enabling them to conduct high-quality music creative classes in future actual teaching.

## <부록> 설문지

###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및 교수불안 연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창작영역에 대한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및 교수불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시고,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가까이 응해주신 예비음악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황민지

## I. 일반적 사항

1. 성별

- ① 남                      ② 여

2.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

- ① 사범대학교          ② 교육대학원

3. 전공 (대학 전공 및 세부 전공)

- ① 건반악기              ② 관현악              ③ 성악              ④ 작곡  
⑤ 국악                  ⑥ 실용음악              ⑦ 기타 (                      )

4. 교육대학원에서의 음악 창작영역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예: 현장실기지도법, 음악활동영역지도, 작곡및편곡법 등 창작 수업 지도와 관련된 강의)

-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5. 교생실습 경험 유무

-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6. 교수자로서 음악 창작 수업 진행 경험 유무 (수업시연 포함)

-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 II. 교수내용지식(PCK)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락 창작(예: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창작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디지털 매체(예: 편집 프로그램, 작곡 프로그램 등)를 활용한 창작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음악극 창작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리듬 창작(예: 리듬풀 창작, 킥타 리듬 창작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가사 창작(예: 가사 및 개사, 랩 창작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변주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국악 창작(예: 토리에 맞는 가락 창작, 말 붙임새 창작, 변형 장단 창작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창작영역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식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및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창작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 창작영역이 학년 군 별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창작영역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중학교 자유학기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악 창작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지 계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악 창작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지 계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상황(예: 학교 운영 상황, 단위 수 등)에 대해 잘 알고, 이러한 이해 아래에 음악 창작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필요한 교구, 교재 등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시설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맞는 수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알맞은 음악 창작 수업(예: AI나 코딩을 활용한 수업 등)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예: 악기, 사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음악 창작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교육과 지속적인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학생들의 수준 및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창작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창작 수업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창작 수업 시 학습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창작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예를 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창작 수업에 필요한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창작 수업 주제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학생들이 가락 창작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학생들이 음악극 창작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학생들이 리듬 창작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학생들이 가사 창작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학생들이 변주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학생들이 국악 창작 수업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학생들이 가락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악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학생들이 음악극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학생들이 리듬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학생들이 가사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학생들이 변주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학생들이 국악 창작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창작 수업 시 발문, 피드백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음악 창작 수업에서 학생 활동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창작 수업을 끝마치기 전에 수업의 내용 및 활동을 요약하고 요점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창작 수업 학습 결과에 대해 해석하여 수업 개선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창작영역으로 수행평가를 잘 계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의 창작 수업 교수법은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의 창작 수업 교수법은 학생들의 음악 창작에 대한 흥미를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창작영역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가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Ⅲ. 교수불안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창작 수업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창작 수업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창작영역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창작영역과 관련한 지식 습득에 대해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창작영역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교수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교수방법의 미숙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창작영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형성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창작 수업 시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창작 수업 시 학생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당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창작 수업 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창작영역의 수행평가 문항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창작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에 대한 후회가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창작 수업이 불안하여 웬만하면 교육용 웹 사이트나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나보다 창작 수업을 잘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전문가와 창작영역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